남편 없는 과부, 자발적인 생과부

(딤전5:3~15)

3.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4.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5.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6.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남편 없는 과부, 자발적인 생과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오래전에 신문기사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중국 서부의 닝샤라고 하는 지역에 속한 마을 중 웨이저우쩐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리샤오샤라고 하는 젊은 여자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리샤오샤는 결혼한 지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만 생과부가 돼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남편이 마약을 복용해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안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시아버지도 역시 마약복용과 판매 혐의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엄격하게 마약을 단속하는 모양인데, 이건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나머지 네 형제가 다 마약 관련 범죄로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들만이 남아있고, 자녀도 10세짜리 한 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리샤오샤의 이웃집은 상황이 못지않게 참담하다고 합니다.
이웃집 여자의 남편은 마약관계로 아예 총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과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이 모두 현재 마약판매 죄로 복역 중이었다고 합니다.
야, 참 이거, 그래서 닝샤에 위치한 웨이저우쩐과 옆에 있는 샤마콴쩐이라고 하는 마을은 과부촌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과부촌.

왜냐하면 이 두 마을의 주민 중 절반 이상의 가정이 마약 때문에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부촌이라고도 하고 동시에 마약촌이라고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생과부가 뭡니까?
남편이 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멀리 떨어져서 헤어져 있거나, 아니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나이인데 며칠 만에 남편이 죽어버린 경우, 생과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말씀에 의거해서 신앙인인 여성분들을 정의하자면,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여성은 자발적인 생과부입니다.
자발적인 생과부가 아니라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신앙적인 의미에서 과부를 내용적으로 새롭게 정의해보자면 5절과 6절 말씀에 근거될 수 있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과부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조건이 나옵니다마는, 교회에서 과부들을 구제했는데 그 구제명단에 오른 사람들이 참 과부입니다.
60세 이상으로 각 방면에 선행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을 참 과부로 올려서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생계를 부분적으로나마 도와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믿는 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과부의 얘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는 여성들의 캐릭터가 규정되고 있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과부로서 외롭지 않은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외로움이 뭡니까?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음이 비어있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마음이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채우고 싶지 않겠어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채울 게 없는 상태, 무엇으로도 채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죽고 나면 2000년 전에 여자들의 경제활동의 가능성이 거의 제로상태라고 봐도 좋을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런 시절에 남편만 의지하고 살던 여자가 자식과의 관계도 변변치 못하게 돼서 도저히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게 된 경우, 이 외로움 정말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비어있는데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요즘의 과부의 경우, 경제활동을 해서 돈 버는 재미로 산다든지 돈 쓰는 재미로 산다든지, 자식을 잘 키워서 극심한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달래고 산다든지 할 텐데, 그 당시 과부들에게 외로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마음에 채울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원리는 똑같아요.
돈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현실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소망합니다.
자식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현실적으로 자식이 잘 클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됩니다.
과부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렇게 하기에 유리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은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다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족이 없음과 기쁨이 없음과 행복이 없음을 다 포함하는 게 외로움이라는 감정이니까, 참으로 이 외로움이라는 게 불행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엄격하게 말하면 신앙 안에서는 외로움은 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데 왜 외롭습니까?
이 세상에 마음에 채울 것이 없다고 외롭다는 것은 죄에요.
근데 죄이긴 죄인데 아주 유리한 죄입니다.
어떻게 유리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모셔 들여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아주 유리한 조건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음의 채움이 마땅치 않아서 생기는 그런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은 비단 과부만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남편 있는 여자들은 외로움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고 남편으로부터

그것을 얻기를 기대하며 살아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 바울의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과부, 남편 없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을 갖고 있는 여성들 모두가 지향해야 될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남편이 있다고 해서 남편에게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남편과는 무슨 관계냐?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쁜 상태에서 남편을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생긴 그 기쁨이 남편으로 인해서 배가될 수 있고 남편을 만날 때 감사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남편을 통해 얻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남편들이라는 존재가 어떤 상태이냐 하면, 앞에서 우리가 한 마약 촌의 얘기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중독돼있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돈에 중독돼있고 사업에 중독돼있고 자존심에 중독돼있고 그리고 골프나 낚시 같은 취미에 중독돼있고… 하여간 이 세상 것에 중독돼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세상 것에 중독돼있는 남편들에게서 변하지 않는 기쁨과 만족을 얻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혼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남편에게 기대를 합니까? 남편이 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멀쩡하게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자발적인 생과부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바울의 말씀을 빌려 정의를 내리자면, 비어있는 마음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과부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있는 여자도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마음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면, 결론적으로 말해 자발적으로 생과부가 되라는 얘기에요.
내 비어있는 마음상태를 극복하고 만족함과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생과부가 되라는 얘기에요, 모든 여성들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과부와 남편이 있는 여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내 행복은 예수님과 결혼함으로써 신랑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만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로써 만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훨씬 실질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본론적인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기에 유리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남편이 있으면 신경도 많이 쓰이고 마음도 많이 뺏기고 할 것 아니에요?
남편이 먼저 죽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기왕에 불행한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졌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그 불행을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전심전력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서 그렇게 하자!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과부에 대한 바울의 기대가 이거 뭐 끝도 없어요.
어떤 상태냐 하면, 과부에 대한 기대가 거의 감독과 집사님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의 수준과 맞먹는 수준을 과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육십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렇다면 감독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거 뭐 거의 맞물려가고 있어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과부의 명부에 올리라,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과부도 나그네를 대접하고 감독도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선행을 하는 자를 과부로 올리라.
감독 직분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사도바울이 과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굉장히 교회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유리합니까?
선한싸움을 해나가기에 유리합니다.
선한싸움이란 내 마음과 하나님과의 간격을 제거하는 게 선한싸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남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전심전력하려고 해도 남편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기왕에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이 불행한 상황을 불행한 상황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아서 선한싸움을 바짝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부를 인도하고 이끌어서, 그처럼 모든 방면에서 진짜 선한 행위가 징표로 나타나는 과부들이 세워질 때, 남편 있는 여자들조차도 '아, 어떻게 남편도 없는데 저렇게 행복하고 만족하고 선행을 일삼고 살 수가 있을까?' 하면서 교회 모든 여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바울이 딱 포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교회에서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그분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 선한싸움을 잘 싸운 베테랑으로서의 징표가 나타나면 이게 교회에 얼마나 큰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과부의 존재를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어차피 여자 분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모범이 될 수 있는 여성의 올바른 케이스를 과부에게서 구현시키려고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걸 디모데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부들이 있느냐? 기회다, 이들을 통해서 여자들이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자들이 선한싸움을 하며 그 싸움에서 이기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여주라!'
결국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는 과부의 모습, 여기서 신앙인 여성들의 갈 길을 찾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반대가 어떤 겁니까?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참 과부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마음이 비어있어 허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향락을 찾는 과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향락이라는 말 속에는 남자관계를 포함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좀 더 폭 넓게 얘기를 하면, 이 땅 위에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나인 성의 과부에게 외아들이 유일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었을 겁니다.
이것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향락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대상들을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 이게 다 향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본문에 자식을 잘 양육하는 것도 참 과부의 조건 중에 들어있는데, 그리고 또 본

문을 읽어가다 보면 자기 가족이나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앙자보다 더 나쁜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어머니로서 자식을 기른다는 것과 자식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 같은 겁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 어머니가 자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자식에게 접근해서 자식을 키울 때와 자식이 내 기쁨이 돼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자식 중독에 걸려서 자식을 키우는 것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참 과부 명단에 올릴 수 있는 조건으로서 자식 양육을 얘기한 것은 과부가 된 이유로도 선한싸움을 잘 싸워 하나님으로 외로움을 극복해나가면서 자녀를 자기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될 대상으로서 양육한 자, 이들이 참 과부라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이런 참 과부들을 보면서 남편이 있는 모든 여자들도 남편을 대할 때도 자식을 대할 때도 그들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삼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외로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대상으로 받아들여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으로 외로움을 극복한 상태에서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하고 환하게 웃는 어머니로 아내로서 자식과 남편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발적인 생과부가 되라는 얘기에요.
남편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지 않는, 그래서 생과부인거죠.
외로움을 과부들이 하나님을 소망한 것처럼 똑같이 남편이 있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처럼 남편이 있는 자발적인 생과부만 교회 안에는 존재할 수 있을 뿐이지요.

이게 안 되면 계속해서 향락을 추구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외로움을 극복하려는 것, 이게 향락이거든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라이브로 연결되고 있지 않으면 다 죽은 겁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오래 믿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런 권사님들끼리 모이면 식사하고 그런 모임들이 많아요.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는 권사님들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모임은 신앙적으로 잘 진행되는 모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모임은 만나서 식사하고, 완전히 세상적인 얘기만 하다가 헤어집니다.
그러면 라이브 연결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건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생과부도 아니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 과부도 아닙니다.
일단 결혼하고 나면 모든 믿음의 여성들은 두 가지 중 하나인 거예요.
남편을 끝까지 살려두시면 자발적인 생과부로 사는 것이고, 남편을 일찍 데려가시면 참 과부로 사는 겁니다.

감독과 집사에게 나타나는 덕목, 그런 덕목이 얼마든지 여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선한싸움을 하는 거예요.
선한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수로 선한싸움을 해서 마음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간격을 없애고 라이브 연결을 유지해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길을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십자가 생활화의 당위성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어떻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 마음과 뜻과 힘이 죽는 거예요.
마음이 죽고 뜻이 죽고 힘이 죽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십자가가.
근데 마음도 뜻도 힘도 이 세상이 자꾸 뺏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분들이 결혼해서 십자가를 생활화할 때 자발적인 생과부가 되는 겁니다.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것,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생과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남편에게 자식에게로 가면서 남편도 자식도 하나님 때문에 생긴 기쁨을 갖고 임하는 사역의 대상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남편에게 자식에게 대해서 구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과부가 된 분들은 참 과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의 모든 여성들이 남편이 먼저 돌아가셔서 참 과부가 되든지, 남편이 살아있으면 자발적인 생과부가 됨으로써 선한싸움의 베테랑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와 간구에 전력하는 것은 참 과부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는 모든 자들도 자발적으로 생과부가 됨으로써 이 복된 복지의 삶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자녀와 모든 타인을 만날 때에 복지를 누리는 기쁨이 표현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